

최경주 "2연패" 위성미 "컷 통과"

■ KPGA 'SK텔레콤오픈' 내일 개막

한국에만 보면 우승컵을 들고 나가는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 2연패에 나선다.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1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한국프로골프 사상 두번째로 여성 선수 컷 통과에 도전한다.

최경주 국내대회 12승 목표

4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록힐코스(파72·7천111야드)에 막을 올리는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당연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출전 선수 153명 가운데 세계랭킹이 42위로 가장 높은 최경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승 뿐 아니라 국내 무대에 서도 11승을 올린 절대 강자다.

특히 최경주는 미국 진출 이후 해마다 한 두차례씩 한국에서 우승컵을 챙겨 고국 선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위성미는 지난 2003년 한국프로골프 SBS 최강전에서 컷을 통과하고 공동 10위에 오른 박세리(29·CJ)에 이어 여성으로 두번째 컷 통과를 노린다.

SK텔레콤오픈에서 위성미의 컷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선 '상대 평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골프대회 컷 기준을 감안하면 SK텔레콤오픈은 지금까지 위성미가 출전했던 남자 대회 가운데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기량이 날이 다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낙관론의 배경이다.

남자 선수들과 대등한 수준의 장타력은 이미 검증됐고 특히 쇼트게임과 퍼팅 실력은 프로 전향 이후 집중적이고 체계

적인 훈련을 통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컷 통과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국 선수나 아시아프로골프투어 선수들이 장타력에서 위성미에 결코 뒤지는 선수들이 아니었다 쇼트게임이나 퍼팅 능력은 아무래도 위성미에 비해 다들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미 장타력男과 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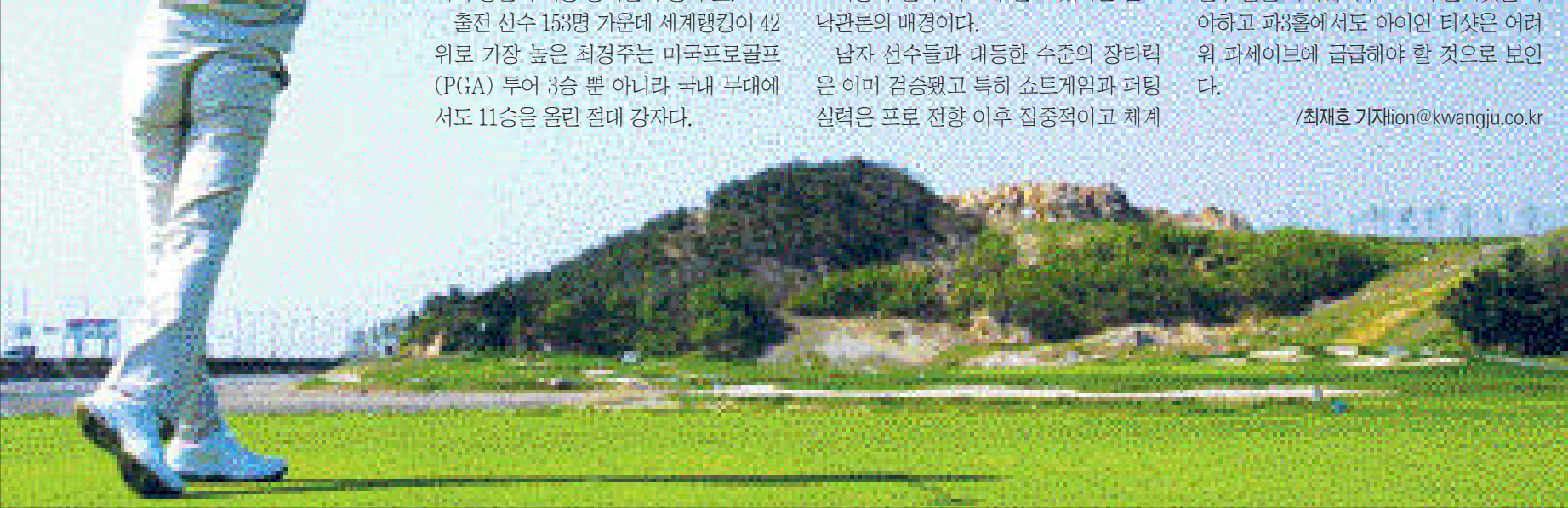
코스 여건도 위성미에게 썩 좋지 않다.

스카이72골프장은 전장 7천111야드인 코스는 아니지만 '남자프로대회 코스'임엔 틀림없다.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가 270~280야드 가장 때리는 위성미는 파4홀 가운데 일부 홀은 페어웨이우드로 두번째샷을 쳐야하고 파3홀에서도 아이언 티샷은 어려울 위 과제에 비해 급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 기자hion@kwangju.co.kr

SK텔레콤 오픈에 참가하는 골프 천재 소녀 위성미 선수가 2일 영종도 SKY 72 GC에서 연습라운드를 도중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현이 우승, 내 일처럼 기뻐요"

박세리, '김미현 우승' 소감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깊은 침체를 겪으면서 느낀 동병상련인가.

지난 1일 김미현(29·KTF)이 3년9개월만에 우승컵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리자 박세리(29·CJ·시진)가 제 일처럼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박세리 소속사 CJ 관계자는 김미현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LPGA 투어 진출컵스앤드러

조트오픈이 끝난 뒤 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 시간 밤 늦게 통화가 된 박세리는 "미현이가 우승해서 기뻐다. 많은 신예들에 밀려 LPGA 1세대 한국 선수들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었었다."

나 역시 국내 팬들에게 곧 좋은 목소리를 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미현이가 우승 소감 인터뷰 때 우는 것을 보고 나 같아도 울었겠다"고 말했다.

박세리와 김미현은 어릴 때부터 골프 인생에서 떼어 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다. 주니어 시절부터 앞서거나 뒤서거나 프로 언니들을 울렸던 박세리와 김미현은 1년 터울로 미국에 진출해 LPGA 투어에 '한류'의 씨를 뿌렸던 1세대 강판이다.

둘은 1977년생 동갑이지만 김미현이 한해 일찍 학교를 다녀 선행이고 LPGA 진출은 박세리가 1년 빠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공동 9위에 올라 거의 2년여만에 '톱 10'에 입성한 박세리는 축하한다는 CJ 직원의 인사에 "뭐 그런 것 가지고"라며 속삭여줬지만 "이제 조금씩 감각을 되찾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살짝 내비쳤다.

■ 아드보카트호 국내 마지막 평가전

23일-세네갈

26일-보스니아

아드보카트호가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오는 23일 세네갈,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두 차례 국가대표팀 평가전 모두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11일 독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하면 대표팀은 15일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소집돼 탐금질에 들어가고,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로 숙소를 옮겨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축구협회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1일 출국 하기에 앞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 등을 고려해 두 차례 평가전 모두 서울에서 치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표팀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 다음 날인 27일 바로 스코틀랜드로 출국해 훈련을 계속하며, 두 차례 더 평가전(6월1일 노르웨이, 6월4일 가나)을 치른 뒤 다음달 6일 월드컵 본선 캠프로 정한 독일 쾰른으로 입성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hion@kwangju.co.kr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2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차전에서 미들즈버러의 수비수를 제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박지성 선발 출전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선발 출전에 비교적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으나 평범한 평가를 받았고 맨유는 하위권의 미들즈버러와 득점없이 비겼다.

맨유는 2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차전에서 후반 20분 루드 반 니스텔루이가 페널티킥을 실패해 미들즈버러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24승8무5패가 된 맨유는 3위 리버풀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해 2위 자리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루니 독일행 어려울듯"

맨유 퍼거슨 감독 밝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오른발 골절상을 당한 웨인 루니(21·맨유)의 독일월드컵축구 본선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재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루니가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은 "스벤 고란 에릭손 대표팀 감독과 주치의에게 루니의 부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시몬스침대' (Simons Bed) featuring images of bed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신작사' (Shinjaksa)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